금융

scikit-learn)

(imbalanced-learn **)**

scipy.stats

Python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개요

• 카드사 고객별 카드 사용 데이터(총 거래금액, 리볼빙 잔액 등),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나이, 교육 수준, 결혼 상태 등), 금융 데이터(신용한도 등) 그리고 이탈 여부를 Yes/No로 나타내는 field로 구성됨.

분석 목표

- 이탈 여부가 포함된 데이터인만큼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고객의 이탈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를 포함시켜 모델을 학습시키는 접근부터 시작했으나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 혹은 인과가 뒤집힌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어 유의미한 메세지를 도출하기 어려웠음.
 - (e.g., '총 거래금액이나 총 거래횟수가 낮을수록 이탈 확률이 높음' → 상식적인 결과, '최근 6개월 간 카드사로부터 연락 받은 횟수가 높을수록 이탈 확률이 높음' → 이탈 조짐이 보여 카드사가 연락을 취한 것일 가능성 높음, 즉 인과가 뒤집힌 결과로 해석 가능)
- 또한 모든 변수를 활용한 모델은 자사 카드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포함해 신규 고객 유입 시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함.
- 따라서 보다 (1) 상식적 유추가 어려운 메시지를 함축하며 (2) 자사 카드 사용 기록이 없는 신규 고객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분석 목표로 잡음. 또한 도출한 모델을 원본 데이터셋에 적용함으로써 이탈 조짐을 보이는 고객을 예측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노림.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 기반 모델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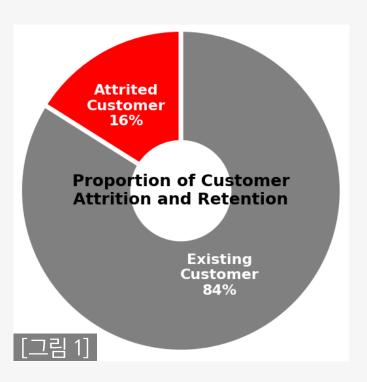
변수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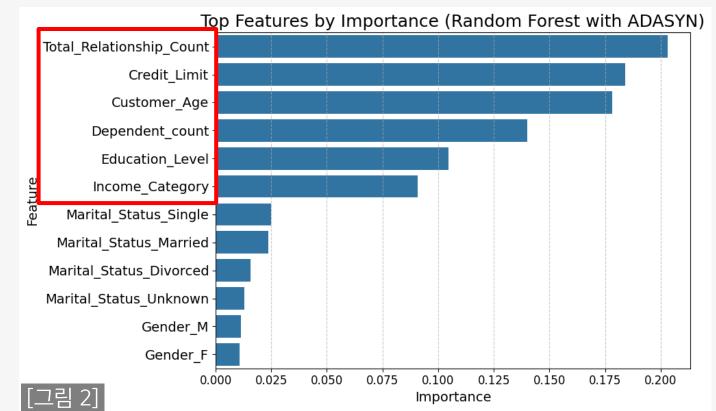
- 자사 카드 사용 데이터가 없는 신규 고객 유입 시에도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존재함.
 - (수치형 변수) 나이, 부양가족 수, 자사 금융상품 이용 개수, 신용한도
 - (범주형 변수)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타 카드사 이용 행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가정)
- 범주형 변수 중 위계가 존재하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에는 Ordinal Encoding을, 그렇지 않은 성별과 혼인

상태에는 One-Hot Encoding을 적용함.

랜덤포레스트 모델 학습

- 이탈 고객과 잔존 고객 데이터 수에 비대칭이 존재하는 바([그림 1]) 전처리 과정에서 오버샘플링 기법인 ADASYN을 적용함. (sampling strategy = minority)
- 모델에 의해 도출된 Feature Importance는 (1) 자사 금융상품 이용 개수
 (2) 신용 한도 (3) 나이 (4) 부양가족 수 (5) 교육 수준 (6) 소득 수준 순으로 높았으며 혼인 상태와 성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음.
 ([그림 2])





랜덤포레스트 예측 결과 기반 고객 그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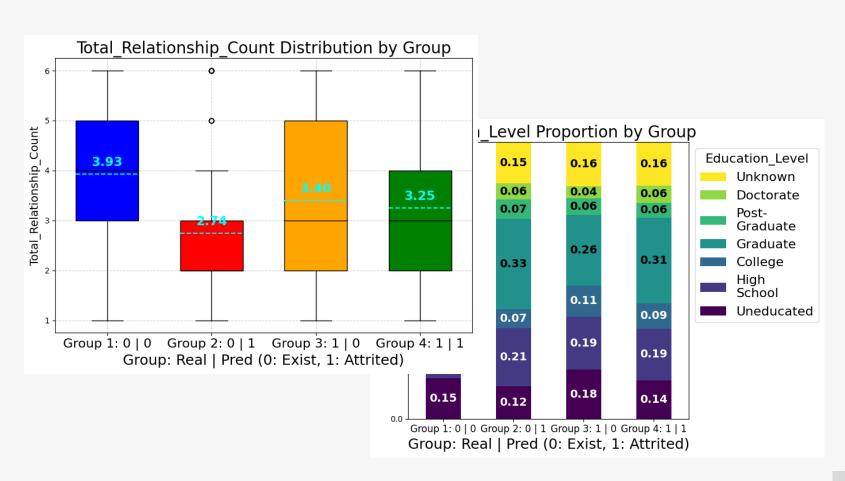
그룹 설정

- 도출 모델을 원본 데이터셋에 적용한 뒤 예측 결과와 실제 값을 기반으로 표와 같이 그룹을 분류함.
- 그룹 1 (모델 그룹): 안정적인 이용행태를 보이는 그룹으로서 신규 고객 진입 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경우 안전 고객이라 판단하는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룹 2 (위험 그룹): 잔류 고객이지만 모델이 이탈로 예측한 그룹으로 이탈 예방 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

그룹	실제	예측
그룹1	잔류	잔류
그룹2	잔류	이탈
그룹3	이탈	잔류
그룹4	이탈	이탈

그룹 특성 분석 방법

- 도출한 모델을 적용하면 이탈 예측의 결과를 알 수 있긴 하지만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도 보다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자 함. (e.g., '계열사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은 추후 안정적인 이용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이를 위해 그룹별로 모델에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함.
 - 수치형 변수: Boxplot with Mean Line
 - 범주형 변수: Stacked Bar Chart



랜덤포레스트 예측 결과 기반 고객 그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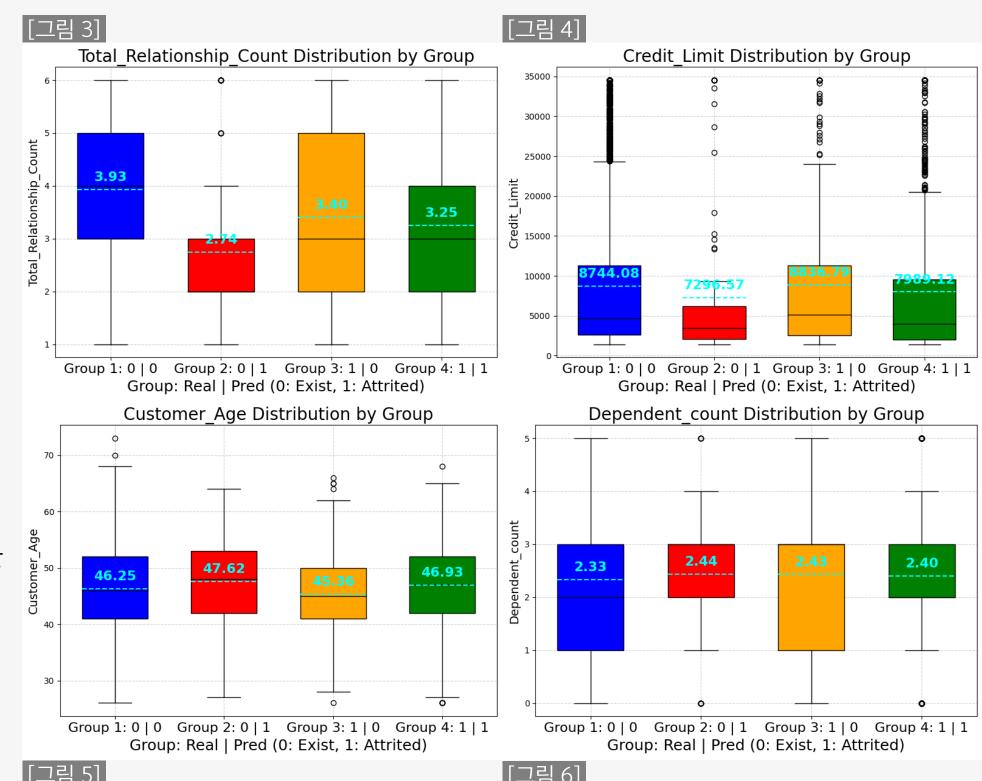
수치형 변수 분석 결과

그룹 1 (모델 그룹)

- 4그룹 중 가장 높은 평균 자사 금융상품 이용 수와 가장 낮은 **평균 부양가족 수**를 보임.([그림 3], [그림 6])
- 그룹3 제외 시 가장 높은 평균 신용한도와 가장 낮은 평균 나이를 보임.([그림 4], [그림 5]) 이는 '잔존 그룹(그룹1, 그룹2) 중 비교적 높은 신용한도와 비교적 낮은 평균 나이를 보이는 군집'으로도 해석 가능함.
- → 신규 고객 평가 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고객은 안정적 이용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

<u>그룹 2 (위험 그룹)</u>

- 모든 지표에서 4그룹 중 가장 극단적인 수치를 보임.(가장 높은 평균 나이와 평균 부양가족 수 ([그림 5], [그림 6]), 가장 낮은 평균 자사 금융상품 이용 수와 신용 한도 ([그림 3], [그림 4]))
- → 잔존 고객 중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고객들에 대한 이탈 예방책 적용이 필요함.



랜덤포레스트 예측 결과 기반 고객 그룹 분석

범주형 변수 분석 결과

그룹 1 (모델 그룹)

- 4그룹 중 중위 교육수준(대졸+대학생)과 중위 소득 및 중위~ 고소득군(60~80K, 60~120K)에 속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그림 7], [그림 8])
-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의 양극단(초상위/하위 학력, 초고/저소득)에서는 평균적인 비율을 보임.

그룹 2 (위험 그룹)

- 교육수준에서는 4그룹 중 **초상위 학력(박사졸+석사졸)**에 속하는 비중은 가장 높고, 상대적 하위 학력(무학력+고졸)에 속하는 비중은 가장 낮음. 즉 보편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가능. ([그림 7])
- 소득수준에서는 4그룹 중 초고소득군 및 상대적 고소득군 (>120K, >80K)에 속하는 비중은 가장 낮고, **초저소득군 및** 상대적 저소득군(<40K, <60K)에 속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 즉 보편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 가능. ([그림 8])

